

습관성 유산 요인과 극복

40% 원인불명...산모 스트레스 줄여라

습관성 유산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시에는 이미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다방면으로 치료를 위해 시간적·경제적 투자를 한 경우가 많으며,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주변인들에게 도전적이거나 자포자기 심정을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선천적 자궁기형, 수술 치료 모체 면역조절로 극복 가능

습관성 유산이란? = 과거 분만력에 관계없이 연속 2회 이상 자연유산이 반복되거나 임신 20주 이전에 3회 이상 반복된 자연 임신 손실을 말한다.

근자 자궁내막의 황체 호르몬 수치의 부적절한 반응으로 착상과 임신유지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정상 여성에서는 3%의 낮은 빈도를 보이나 습관성 유산환자에서는 35~50%로 빈도가 높다.



최범채 원장이 2차례나 임신했으나 유산한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에게 습관성 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궁내막에 의한 수술적 방법이 있으며 산전에 분만방법에 대해 상의가 필요하다.

자궁경관 무력증과 선천성 또는 후천성 자궁결함으로 나눌 수 있다. 자궁경관 무력증은 자궁경관의 선천성 또는 외상성 결함에 의해 임신 18~32주에 진통이나 출혈없이 자궁경관의 개대로 태어나 양막 탈출이 있는 것으로 진단에는 산과력, 부인과적 진찰, 초음파 촬영이 도움된다.

자궁결함은 선천성 자궁기형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임신 중반기에 유산이 초래되며 부적절한 태반의 착상으로 초기유산을 초래하기도 하며 동반 자궁기형으로 신장(콩팥)이상을 수반하기도 한다.

에 변화가 초래되어 착상장애와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

환자의 혈청에서 항인지질항체 검사나 투포스항체 검사에서 양성소견이 진단되는 경우는 태반혈관 내피 손상으로 인한 혈관내 혈전과 관련하여 임신소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유아용 아스피린(85mg)을 복용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치료로서 해파린 주사요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습관성 유산의 진단 및 치료 시기 = 적어도 2회 이상의 임상적 임신이 자연유산을 초래한 경우, 35세 이상의 노령 임부, 그리고 불임증과 동반된 습관성 유산 부부는 우선적으로 전문의사의 상담이 필요하다.

최범채 시열병원습관성유산센터 원장 /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치대 노인구강질환제어 연구센터 산업체·해외 교류로 연구 박차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원) '노인구강질환제어연구센터'(센터장 윤정훈 교수)가 노인의 구강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등과 공동으로 상호 교류 및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기초치의학 분야의 활성화와 우수한 기초의 학자 양성을 위해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노인구강질환제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우수연구센터인 기초과학연구센터(MRC)로 선정, 지난해 문을 연 이후 2017년까지 총 12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성 구강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실된 구강조직을 재생하는 후보물질 기술 개발과 적용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센터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노인성 구강질환의 조기진단, 예방 및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노인치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연구센터는 관련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연구 증진을 위해 (주)에니켄·(주)덴티스·(주)AY Lab

이와 함께 매일 자체 세호 의견교류를 통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국내외 학술활동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자들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수한 논문과 지역인재 배출을 위해 활발한 국제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윤정훈 센터장은 "노인성 구강질환 조기진단, 예방 및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는 기본이고 지역 치과치료 기기·재료 산업화 및 우수한 기초치의학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송은규교수팀 '대한슬관절학회' 최우수 논문상

화순전남대병원 관절센터 송은규 교수팀(송은규·선종근·박주권·정문수·정우빈·Khan Shah-nawaz)이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2010 대한슬관절학회 제 28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터를 제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상금으로는 200만원 받았다.

수상한 논문의 주제는 '불안정성이 없는 슬관절과 전방십자인대 손상 슬관절에서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슬관절 전후방 및 회전 안전성에 관한 생체 비교 연구'이다.

이번 논문은 최신 네비게이션을 이용해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있는 슬관절의 불안정성을 대조군과 비교함으로써 전후방 및 회전 안전성의 기본 테

화순전남대병원장인 송은규 교수는 2011년 대한관절학회 차기회장, 한국컴퓨터정형외과학회 차기회장, 2012년 세계컴퓨터정형외과학회 회장에 선임됐으며 2009년 아시아지역컴퓨터정형외과학회에서 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학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달성한 당뇨병 환자들의 10년 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률은 18.2%였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들은 23.5%로 높아졌다고 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당뇨병 환자들 고지혈증 관리 부실 2017명 실태조사

당뇨병 환자들의 고지혈증 관리실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박성우)에 따르면 고지혈증을 동반한 전국의 당뇨병 환자 2017명을 대상으로 고지혈증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개월 동안의 치료에도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저밀도콜레스테롤) 수치가 치료기준에 도달한 환자는 3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거나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일수록 10년 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당뇨병 환자들의 LDL콜레스테롤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했다고 학회는 덧붙였다.

경색 등의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국당뇨병학회(ADA)와 미국심장학회(ACC)는 당뇨병 환자들의 LDL콜레스테롤 농도를 100mg/dl 미만으로 낮추고, 최고 위험군의 경우는 70mg/dl 미만으로 강하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 최고 위험군에 속한 환자들 중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70mg/dl 미만으로 조절한 환자는 34%에 그쳤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달성한 당뇨병 환자들의 10년 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률은 18.2%였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들은 23.5%로 높아졌다고 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은 심근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Opportunity' (작은 만남 큰 기회)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Gwangju, including medical clinics, restaurant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